



우리에게는 위대한 어머니조국이 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 75돌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해외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뜨겁게 갈마드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이라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어머니조국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고마움이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 바로 조국이다.

이것을 생활체험을 통하여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 해외동포들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의 불행에 찬 해외류방의 력사는 일제의 조선강점시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민족수난의 그 세월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갔고 바다 건너 일본땅에 끌려가 온갖 민족적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죽지 못해 살지 않았던 안되었다. 이런 그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인 공화국을 창건해주심으로써 비로소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 새 삶의 길을 걷게 되었다.

주제 37(1948)년 공화국창건이 온 세상에 선포된 그해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평산사에서 거울바다를 헤쳐 조국의 품에 안긴 공화국창건 제일조선인경축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었다.

이날 일본에 살고있는 동포들의 생활현황이며 자녀교육사업, 제일동포들의 피눈물나는 과거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어머니수령님께서 제일조선동포들은 나라없던 과거의 민족이 아니고, 제일동포

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 공화국정부주위에 굳게 뭉쳐야 하며 자주독립국가 해외공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것이라고 하시었다.

당당한 공화국의 해외공민! 일찌기 력사적 서한 《대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어 제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들이 조국땅위에 인민의 새 나라를 창건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도록 마땅히 이끌어주시어

주제37(1948)년 4월 평양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 자련석회에 조연대표를 불러주시고 제일동포들이 공화국헌법준수에 대한 진인적의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시분도, 공화국창건대회에 제일동포대표를 참석시키기 위하여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시분도 수령님이시었으니 위대한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해외동포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해주셨으로써 해외동포들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사람은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도 우선 자기 조국, 자기 민족



을 위하여 살며 일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은 그대로 주체적해외동포조직인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의 탄생을 가져왔다. 총련이 제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대신하는 진정한 어머니품으로 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고 동포들과 후대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총련동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뜬눈으로 새날을 맞으시고 조국을 방문한 동포들을 만나시는 것이 제일 기쁘시며 총련일군으로서 상공인, 지식인, 문화체육인, 청소년학생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모두를 다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사랑을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길이 전하고있다. 오늘도 제일동포들이 즐겨 부르는 가요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우려》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다. 진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한푼의 자금이 귀한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짓는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적 무라고 하시며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그때로부터 제일동포자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장장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 변함없이 제일동포들에게 전해지고있다.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는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다정한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보신 이역에서 사는 제일동포들에게 력사적인 귀국의 배길도 열어주시고 그들은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생활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나를 주면 열배를 더 주고싶어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총련의 일군들을 나라의 정사를 토의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고 조국건설에 특색있게 공헌한 총련조직들과 단체, 사업체, 개별적동포들에게 각종 국가훈장들과 명예칭호들을 수여해주시면서 《애국》이라는 값높은 칭호와 더불어 참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죽어서라도 조국의 품에 안기려던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어찌 그 한사람만이 아니라 전 총련의장 한덕수, 전 총련중앙 제1부부장 리진규, 전 제일조선문학예술가동맹 위원장 허남기, 전 제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박정현, 전 금강산가극단 인민 배우 엄국지 그리고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공

화국의 품에 안긴 최덕신, 전 국제레전드런댄싱 총재 최홍희...

오늘도 영생의 언덕에서 빛나는 그들의 삶은 공화국이야말로 애국의 넋을 지닌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끝까지 운명을 맡기고 마를 진정할 조국, 따사로운 삶의 품이라는 것을 가슴뜨겁게 새겨주고있다.

해외 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력사는 오늘 회세의 위인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제111(2022)년 5월 28일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께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각계 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에서 각계각층 동포 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는것을 현시기 총련의 기본임무로 밝혀주시었다.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생활에 대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본사기자 박철남

백두산을 우리러려사는 사람들



항일전의 총포성이 드는 백두산을 가까이 두고 사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제일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동포들은 비록 해외에서 살지만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애국애족의 한길을 줄기차게 걸어오고있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들과 조국의 기념일들을 맞을 때면 재중동포들은 길림성 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정성껏 마련한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드리고 삼가 인사를 올리고있으며 수령님의 동상을 우리러 애국애족의 결의도 다지곤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술하여 있는 자식을 더 멀리 떨어졌는 자식을 더 잊지 못해하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조국의 주요명절과 기념일때마다 중국에 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동포들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공민들의 절절한 소망도 헤아리시어 예술단을 꾸어 4월의 봄친선에예술축전에 참가하도록 조치 취해주시고 예술지도에 필요한 조국의 전문가들도 보내주도록 하시었으며 봄축전 무대에 참가한 재중공민들이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더없는 영광과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위업을 그대로 이으신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중에서 진행되는 주요행사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대표단들을 불러주시고 대대같은 은정도 베풀어주시었다. 지금도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항일의 옛 전진들이 집적되어있는 길림성 왕청현과 연길현, 안도현, 화룡현, 훈춘현 등지에 분포되어있는 혁명전진지들과 사적물들을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것을 재중조선인운동의 혈통을 고수하고 빛나는 가장 신성하고 숭고한 의무로 내세우고있다. 또

한 절세위인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동포들속에 널리 보급하는것을 총련합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것과 함께 뜻깊은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보고대회, 위대성영구도론회, 도사전시회, 영화관람 등을 통하여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새기며 공화국의 부강발전이 조급이나마 특색있는 기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재중동포들은 지난 시기 회령시 오산덕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더 높고 정중히 모시려는 마음을 담아 적지 않은 수량의 제색조명등을 마련하였으며 혁명사적관을 훌륭히 꾸리는데 리용할 대형시계와 비품들을 기증하였는가 하면 조국의 대건설장들에 자신들의 지성이 깃든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는 애국적소행도 널리 발휘하였다.

조국에서는 이런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높은 국가표창의 영에도 안겨주었다. 뿐만아니라 최영희, 정각현, 리철재 등 조국의 통성번영과 통일을 위해 애국의 길을 걷다가 사망한 총련합회일군들과 재중동포들을 그들의 생존의 소망대로 평양시교외의 품치수려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해외동포애국자료에 안치하도록 해주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조국이 있다. 오늘도 재중동포들은 이런 신념을 가다듬으며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있다. 본사기자 한일혁

부강조국의 숨결을 더해주는 애국의 마음들

오늘 조국땅에 일떠선 수많은 창조물들에는 부강조국의 숨결을 더해주는 제일동포들의 애국심도 깃들여있다. 그 창조물마다에는 제일동포들의 애국지성을 조국청사에 길이 전해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은정이 뜨겁게 담겨져있다.

김만유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예방치료사업을 담당수행하며 전국적으로 의뢰되어오는 환자들에 대한 확진 및 치료를 맡아하는 중앙병원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께서 이국땅 일대에서 살면서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함께 숨쉬며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고있는 일본 니시야라이 병원 원장이며 의학박사인 김만유동포가 조국땅에 병원을 건설하고싶어하는 애국적발기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의 소원을 실현시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일떠세우도록 해주시고 병원의 이름을 《김만유병원》이라 부르게 하여주시었다. 그리고 김만유동포를 병원의 명예원장으로 사업하도록 하여주시었을뿐 아니라 그의 애국지성을 병원과 함께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총성비를 세우도록 하시는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김만유병원은 1983년 4월 21일 병원 원장으로 임명된 김만유동포가 조국땅에 병원을 건설하고싶어하는 애국적발기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의 소원을 실현시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일떠세우도록 해주시고 병원의 이

름을 《김만유병원》이라 부르게 하여주시었다. 그리고 김만유동포를 병원의 명예원장으로 사업하도록 하여주시었을뿐 아니라 그의 애국지성을 병원과 함께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총성비를 세우도록 하시는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안상택거리 동포들이 건설한 안상택거리의 높은 총성비와 애국지성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거리에서 모란봉지하도를 포함한 거리를 총련의 애국사업과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한 사업에 크게 기여한 애국적재일상공인 안상택동포의 이름인민위원회(당시) 정령으로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거리에서 모란봉지하도를 포함한 거리를 《안상택거리》로 제정함에 대하여가 발표되었다. 《안상택거리》표식판을 세우며 거리구획안의 건물들에 《안상택거리》표식판을 붙인다고 밝혀졌다. 안상택거리와 모란봉



애국편직물공장

평양시 중구역 창광산기술에 자리잡고있는 편직물공장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를 맞이한 총련의 애국적상공인들이 선물로 보내온 현대적인 편직설비들과 제직설비들을 기본으로 하여 주제61(1972)년 4월 8일에 창설되었다. 공장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시에 총련선물공장을 건설할 데 대하여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시안의 건설자들

판이 정중히 세워져있다. 공장은 여러 차례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았다. 본사기자 전명진